

영화 표현, 오늘 해방구 찾다

전주국제영화제, 그 곳엔 영화를 표현·감상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걸림돌 따윈 없다. 정치·경제·미학적 한계 없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영화들을 그저 자유롭게 보고 즐기며 머물다가 가면 그 뿐, 이에 더해 작품에 대한 메시지를 직시하고, 그 행간도 읽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을 듯.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은 전주 돔(옥도 CGV 주차장)에서 오후 6시부터.

이번 영화제는 현 세대의 흐름을 반영, 대안독립의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 슬로건을 내걸었다. 전 세계 58개국에서 초청·출품된 229편(장편 179편, 단편 5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작으로는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인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을, 폐막작으로는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서바이벌 패밀리'를 상영한다.

영화제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로 부합하는 색선으로, 혁신적인 주제와 대담한 표현을 그린 영화들을 소개하는 '프론트라인'을 신설했다. '유럽의 도시'를 비롯해 논쟁적인 질문과 화두를 던지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의 한 장면.

는 11편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마스터 프로그램의 경우 '스페셜 포커스' 섹션에선 현대 한국영화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시나리오 작가 송길한을 조명한다.

'월드 시네마스테이프 섹션: 마스터즈 단편'은 자크 리베트 감독의 '습작들' 시리즈를 상영한다. 이 외에도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의 특별전 '마이클 윈터바텀: 경계를 가로지르는 영화작가'를 비롯해 '알렉세이 게르만 전작회고전: 유쾌담한 반역의 작가', '모던 이탈리아 시네마: 재생의 기운' 등의 특별전도 열린다.

영화제가 아쉽게도 선보이는 '전주 돔' (전주 라운지 안에 지은 대형 TFS 텐트)에선 화제의 중심에 섰던 대중작을 위주로 상영한다.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저녁 7시.

←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개막식은 오후 6시 전주 돔에서 혁신적 주제 담은 작품들 선보여

미셸 오슬로의 그림자 애니메이션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를 비롯해 파리에서 벌어지는 하룻밤의 소동을 다룬 '파리의 밤이 열리면'과 또 다른 파리의 모험담인 '로스트 인 파리', 그리고 기쁨을 주제로 한 다양한 그림과 조각을 남긴 모우디 루이스의 예술과 인생을 그린 '내 사랑', 10대 소녀 자카의 생동이 엄마 되기 프로젝트인 '리틀 허버' 등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아외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 지난해 9월 개봉 당시 반역적인 문제작으로 평단을 사로잡았던 '이수리'는 갈라 상영으로 게스트와 관객들이 만나는 즐거운 순간을 제공할 것이다. /정해은 기자

18th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7 선정작 N프로젝트 '노무현입니다'로 확정

대선 경선 초기 지지율 2% 경합으로 진짜 후보자 되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전주 시네마프로젝트 2017 선정작 N프로젝트'의 제목이 '노무현입니다'로 확정, 영화제 기간에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매년 영화제작이 선정된 3명의 감독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이창재 감독의 '노무현입니다'와 김양희 감독의 '시인의 사랑', 김대환 감독의 '초행'이 선정됐다.

'노무현입니다'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정당 최초로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며 정계에 파란을 일으킨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과정과 담고 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경선 초기 지지율이 2%대에 그치는 군소세력에 불과했으나, 경합을 거듭하면서 새천년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작품은 이 같은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로, 안희정 총남지사를 비롯해 유시민 작가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력 이면에 감춰져 있던 개인사를 증언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회고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국제영화제 김영진 수석프로그램머는 "지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자백', '7년-그들이 없는 언덕'처럼, 다시 한 번 다큐멘터리의 파급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노무현입니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를 다루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마무리는 한국에서 얼마나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암시적으로 주장하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영화를 연출한 이창재 감독은 지난 2006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신내립을 받은 무당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사이에서'로 'CGV 한국장편영화 개봉지원상'을 수상,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 '길 위에서'로 한국경쟁 부문에 진출하는 등 전주와 인연이 깊다. 이번 작품 '노무현입니다'를 통해 탁월한 연출력을 정치 다큐멘터리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해은 기자



▶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

'조심스러운' 여자 · '권태로운' 남자, 꿈 통해 가까워질까?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은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운 여자와 모든 것이 익숙하고 권태로운 남자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과정을 다룬 내용의 작품으로 이들이 꾸는 꿈은 '사슴'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전주국제영화제 이상용 프로그래머는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은 같은 꿈을 꾸는 주인공들을 통해 교감과 소통을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평범한 일상의 장면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작품은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동시대에 대한 거대한 우화이자 질문 같은 영화이기도 하다"면서 "소통의 매체는 점점 많아졌지만 진정한

소통이 부재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영화로 많은 관객들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감상하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개막작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의 일디코 엔예디 감독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생으로 1989년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감독으로 급부상했다. 그해 뉴욕타임즈 선정 최고의 영화 10편 중 '나의 20세기'(1989)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마법사 시몬'(1999)이후 18년 만에 발표한 장편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하는 자격을 보였다. 영화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전주 돔' 상영장에서 개막식을 찾는 화려한 게스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옥도주차장: 전주 라운지

나와, 영화보자

Jeonju Intl. Film Festival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돔 상영 Jeonju Dome Screening

| 영화 상영 후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전주 돔 상영' + '뮤지션, 영화와 만나다' |

4. 28 Fri 19:00~ <파리의 밤이 열리면> + 공연: 페퍼톤스/슬루스스	4. 30 Sun 16:00~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19:00~ <내 사랑>	5. 2 Tue 19:00~ <마스터>	5. 4 Tur 19:00~ <리틀 허버> + 스페셜 공연: 요조 "나.아.당.궁"	5. 5 Fri 14:00~ <파트와 매트> 독막독막 대소동>(무료상영)
4. 29 Sat 19:00 <이수리>	5. 1 Mon 19:00~ <리베라시옹 데이> + 공연: 라이바흐	5. 3 Wed 19:00~ <로스트 인 파리> + 공연: 멜로망스/치즈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19:00~ <정글북> + 무료공연: 디에이드 (어쿠스틱 콜라보)/오웬

※ 아티스트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막식 사회자 변경... 이상용 프로그래머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개막식 사회를 맡기로 한 프랑스 영화감독 겸 배우 에두아르 바에르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사회자가 변경됐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사무처는 26일 "오는 27일 개막식에서 박해진 아나운서와 함께 영화제 개막식을 진행하기로 했던 에두아르 바에르가 피치 못할 가족 사정으로 불참하게 됐다"며 "에두아르 감독을 대신하여 개막작 초청을 담당할 전주국제영화제의 이상용 프로그래머가 사회를 맡는다"고 밝혔다.

에두아르 감독은 "첫 한국 방문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무산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며 영화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에두아르 바에르 감독을 대신하게 된 이상용 프로그래머는 지난 2012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이며, 영화평론가로 집필과 방송 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상용 프로그래머는 "에두아르 감독이 과거 칸 영화제 개막식에서 선보인 유쾌한 진행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볼 수 없게 꽤 아쉽다"면서 "빈자리를 잘 채워 박해진 아나운서와 함께 개막식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상용 프로그래머와 박해진 아나운서가 호흡을 맞추어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전주 돔(옥도 CGV 주차장)에서 오후 6시부터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열린다. 본 행사는 오후 7시부터 진행. /정해은 기자